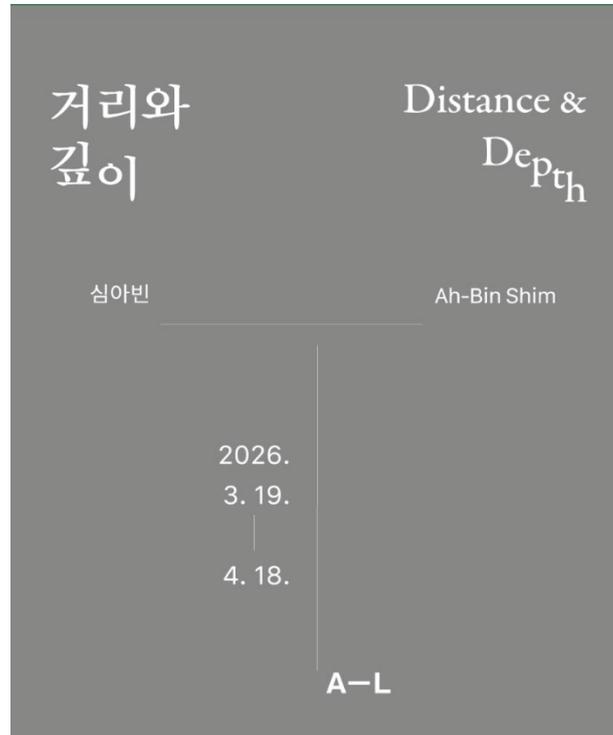


[Press Release] 총 8쪽

《거리와 깊이》



- 2026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4주 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되는 심아빈 개인전
-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삶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 전시는 골프를 통한 삶의 은유, 사물의 내면에 대한 고찰, 개인적 서사를 바탕으로 한 신화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 단순한 도형과 구조,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이미지와 캔버스 배열을 통해 정지된 이미지 속에서 움직임과 리듬을 드러낸다.



○ 전시 개요

전시 제목: 《거리와 깊이》

참여작가: 심아빈

일 정: 2026년 3월 19일(목) - 4월 18일(토)

장 소: 에이라운지(A-Lounge Contemporary)

(문의: 02-395-8135)

개관시간: 화-토, 11 a.m. - 6 p.m. (일, 월 휴관)

입 장 료: 무료

웹 사이트: www.a-lounge.kr

*Press Inquiries: 김다혜 책임 디렉터 (hye@a-lounge.kr, 02-395-8135)

○ 참여 작가 주요 약력 및 간단한 전시 소개

심아빈 (b.1976)

심아빈은 회화와 혼합 매체를 통해 삶의 원리와 존재에 대한 해석을 단순하고 직관적인 시각 언어로 구사한다. 단순하고 정돈된 형태와 명료한 색채를 띤 그의 작품에는 주제의 심오함과 작가 특유의 유머가 깔려 있다. 탄생과 죽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인간 내면의 갈등을 골프 이미지와 연결 지어 표현한 작품이 대표적이다. 그는 여러 캔버스들을 배열하는 작품 구성 방식을 자주 선보이는데, 이는 각 캔버스에 그려진 개별 이미지들과 전체 캔버스 구조 사이에서 드러나는 운동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또한 작가는 캔버스를 보다 입체적으로 사용하여 매체의 물리적 경계 확장을 시도한다.

심아빈은 계원예술대학교에서 영상디자인을, 영국의 던디대학교에서 시간기반예술을 전공하였고, 이후 던디대학교에서 일렉트로닉 이미징 석사 학위를 받았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서울(2013); 하나 매클루어 센터, 스코틀랜드(2015); 갤러리 2, 서울(2016)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프리즘, 백남준과 뉴미디어 아트», 경남도립미술관, 창원(2014); «다시, 주변인», 금천예술공장, 서울(2017); «ZENTRIFIED!», 토마스파크 갤러리, 뉴욕(2019); «더 드로잉; 나에게 드로잉이란», 소마미술관, 서울(2025)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품은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 전시 소개

심아빈의 개인전 《거리와 깊이》가 오는 2026년 3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4주간 에이라운지에서 개최된다. 거리와 깊이는 공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거리가 수평적 길이라면 깊이는 수직적 길이이다. 삶이라는 공간에는 출발점(탄생)에서부터 종착점(죽음)까지의 거리와 그 과정에서의 진실성과 충실함에 기반한 깊이가 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거리와 깊이의 합으로서의 삶에 관한 것으로, 작가가 삶에 대한 고찰과 사유를 회화와 입체 작업으로 표현한 총 13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는 골프를 통한 삶의 은유, 사물의 내면에 대한 고찰, 그리고 개인적 서사를 바탕으로 한 신화적 상상력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된다. 작품은 대개 여러 개의 캔버스가 모여 한 점의 작품이 되는 구조를 띠는데 특히, 인간의 탄생을 골프 이미지와 연결 지어 아홉 개의 캔버스로 표현한 작품과 삶의 과정에서의 고난을 골프 코스로 묘사한 열 세 개의 캔버스 설치 작품이 있다. 심아빈은 무겁고 복합적인 삶의 주제를 간결한 형식과 유머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우리가 나아가는 세계와 존재의 본질을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이끈다.

○작가노트

나는 작품을 통해 삶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펼쳐 놓는다. 한 사람의 극히 제한적인 관점으로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망설이기도 했다. 그러나 크고 작음에 대한 정의를 짓지 않는 철학적 관점에 따라, 나는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나의 창작의 밑거름이다.

고독, 두려움, 불안

내면의 갈등은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의문을 촉발하고 우리를 탄생과 죽음에 대한 고찰로 인도한다. 삶 속에 내던져진 한 인간으로서, 나는 삶과 정체성 그리고 존재에 대한 나의 이해와 해석을 미술로 표현한다.

상징

거울, 시계, 구멍: 거울의 반사, 시계의 반복, 구멍의 심연에서 나는 어떤 신비와 리듬 그리고 두려움을 느낀다. 매일같이 보는 사물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때 마다 무언가 의문스럽다.

골프: 광활한 대자연에서 펼쳐지는 골프는 그 면적에 비해 목표가 아주 작은, 그것도 구멍이다. 'Mother Nature/대자연'에 문자 그대로 '엄마'의 몸을 대입해서 보니, 인간의 생성과 탄생은 신체의 구멍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골프와의 모종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그래서 골프는 나의 작품에서 '탄생'과 깊게 연결된다.

도형: 나는 간결한 이미지에서 종종 아름다움을 느낀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면 하나의 거대한 원(圓)인 것처럼, 단순함이 지닌 아이러니에서 사물의 본질과 아름다움을 느낀다. 나는 도형의 제한적 틀 안에 의미와 해석을 담는 것을 좋아한다.

구조와 움직임

이러한 이미지들을 다른 물질과 연결하여 평면과 입체를 넘나들도록 하거나, 하나의 이미지가 변화하는 과정을 마치 애니메이션 프레임처럼 연속적으로 배열한다. 이때 개별 이미지는 부동의 상태이지만 전체 구조를 보면 어떤 움직임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큰 것과 작은 것

작업 주제가 지닌 무게와 복잡성과 다르게 나는 되도록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아이러니에서 작품은 때때로 유머러스해진다. 유머에 관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은 실없고 가벼운 것이라도 미세하게 삶을 전진시키는 하나의 완전한 힘이다.

○ 대표 작품



18홀

18 Holes

2026

Acrylic, gouache and pencil on canvas

22.2 × 27.3 cm, 21.2 × 34.8 cm, 41 × 32 cm, 60 × 45.7 cm, 33.5 × 45.5 cm, 45.5 × 33.5 cm, 27.3 × 34.8 cm, 41.2 × 53 cm, 72.5 × 60.7 cm, 45.8 × 53.2 cm, 27.4 × 45.5 cm, 21.2 × 34.8 cm, 27.3 × 22.2 cm (13 pieces)



높이에 대한 고찰

Contemplation on Height

2025

Acrylic and pencil on canvas

45.5 × 27.3 cm, 34.8 × 27.3 cm



앞을 향해 뒤를 보여주는 캔버스

A Canvas Facing Forward with Back Showing

2024

Acrylic and pencil on canvas

53 × 45.8 cm



깊이에의 강요

Depth Wish

2017

Acrylic on canv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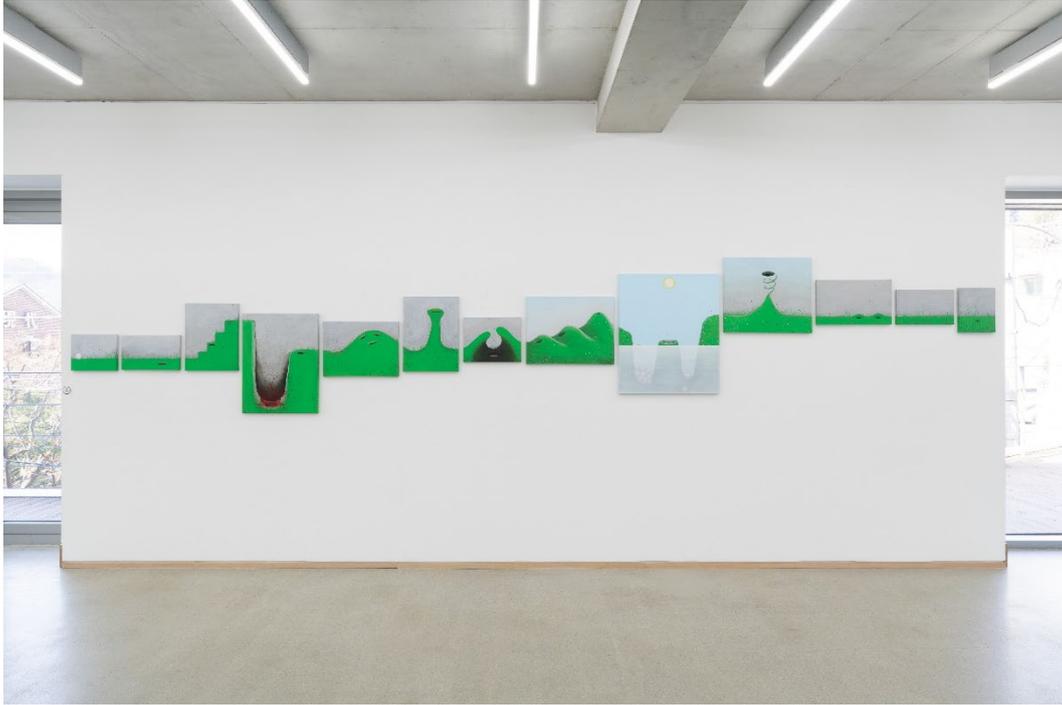
45.5 × 45.5 × 10 cm

A-L

○ 전시 전경



A-L



A-L



* 모든 작품 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사진 제공은 에이라운지입니다.

* All Images ©The artists, Courtesy of A-Lounge Contemporary, Seoul